택사시세 폭락, 산수유 약보합세

IMF 구제금융 한파에 한약재 시장거래도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비교적 풍작을 거두거나 생산량이 많았던 당귀, 황기, 택사등 약재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재배면적이 감소했던 맥문동, 황금, 오미자등은 꾸준하게 상승곡선을 그려가고 있다. 그러나 값이 올라도 그 가격에 수요가 없으니 상승시세 자체가 결국은 거품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

오미자 물량이 부족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근당(6백 g 기준) 1만2, 3천원선에 거래되던 오미자가 지금 현재 산지에서 근당 1만4천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생것으로 수출하거나 식품회사에 납품량이 증가하면서 말린 약재로의 생산량이 감소한 때문이다.

택사 지난해 과잉생산으로 택사값이 폭락했다. 지난 11월 기준 근당(6백 g 기준) 6천원 선이던 택사시세는 지금 현재 산지에서 근당 4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택사값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파종시기에 택사값이 오름과 동시에 재배면적도 예년보다 30%는 더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세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

산수유 지난 11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햇것이 출하돼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 g 기준) 시세는 상품이 5천5백원에서 6천8백원 선까지 중품이 5천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당분간 약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시세동향

맥문동 상보합세, 풍작당귀 하락세

당귀 근당(6백 g 기준) 토당귀 시세가 2천8백원(통), 3천6백원선(절)에 일당귀가 근당 2천5백원 선에 산지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풍작을 기록한 당귀가 햇것출하가 본격화된 중하순경 부터 값이 떨어지기 시작,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근당 4천3백원(통), 6천원선(절)에 거래되던 지난 10월 토당귀 시세에 비하면 통당귀가 34%, 절당귀가 무려 40%나 폭락했다. 그러나 거래는 부진한 편으로 예년같으면 지금쯤 산지에 햇것물량이 바닥날 시기이지만 수요가 없어 햇물량의 3분의 1도 빠져 나가지 못한 상태라고.

건강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강 도매시세는 근당(6백 g 기준) 6천원 선으로 오름세다. 지난해 생강값 폭등으로 생것 출하가 몰림에 따라 상대적으로 건강 생산량이 급감소한 때문. 지금 산지에서는 건강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근당 6천원 시세에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맥문동 지난 한해동안 생산량 감소로 연일 오름세를 기록했던 맥문동 시세가 근당(6백 g 기준) 1만6천원(거심), 1만4천원 선(막맥)에 산지거래되고 있다. 시세는 여전히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IMF한파 영향으로 거래 부진한 가운데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황기 지난해 풍작을 이룬 황기 1년근은 지금 현재 산지에서 근당(6백 g 기준) 4천5백원 선으로 지난 11월기준 시세인 5천원선 보다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년근, 5년근 대황기는 각각 1만7천원, 3만원 선으로 보합세다.

인터뷰

쓰꾸마 약용식물시험장 도시로 시바다 박사

일본의 한약유통 구조는

한국약용작물학회는 지난 11월8일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97 추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후생성 국립위생시험소 쓰꾸마 약용식물시험장의 도시로 시바다 박사가 강사로 초빙돼 『황기속식물 및 천궁의 재배생리』를 주제로 특강했다.

본지는 이날 도시로 시바다 박사를 만나 일본의 약용작물 재배 현황과 시장규모, 유통체계등에 관해 들어봤다. 다음은 시바다 박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일본에서의 약용작물 재배현황은

—1만6천여 농가에서 2만9천여 ha에 재배, 호당 면적이 1.8 ha(약 5천4백평)에 이른다. 많이 재배되는 약초로는 황련 6천 ha, 시호 5천8백 ha, 당귀·천궁이 각각 1천6백 ha 그다음 율무 6백 ha, 작약 4백 60 ha, 황기 1백30여 ha 등 순으로 재배되고 있다.

▲어떤 약재를 얼만큼 수입해 쓰고 있나.

—생산이 부족하거나 전혀 생산되지 않은 품목 또는 농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품목은 대부분 수입한다.

▲한약재 시장규모와 소비형태는

—일본에서는 한국 열대성 생약재인 율금을 비롯해 감초 시호 생강 의이인(율무) 수천톤씩 수입된다. 시호 작약 당귀 율무는 제법 생산량이 많다. 그러나 수요에 절대 부족하므로 많은 양을 수입하지만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은 충분한 값에 수매를 보장한다.

생약조합등서 농민생산 전량수매

당귀·시호·천궁등 약재 년1천t소비

▲농민생산 약재 유통경로는

—일본은 생산량의 거의 전량을 농협이나 생약조합 등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제약회사나 한약방에 납품한다. 농협등 생산자단체의 자금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농민은 안심하고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시중 유통값이 계약단가 보다 턱없이 높아질 경우 수요처인 제약회사와 가격을 놓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출하방법 및 규격은

—일본은 주산지 현의 생약조합등 민간단체가 생산판매를 알선 또는 관장하기 때문에 출하방법이나 생산품의 규격이 엄격히 지켜진다. 특히 보관을 보증받기 위해 규격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일본에서의 약용작물 연구기관은

—후생성 산하 국립위생시험소에 생약부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5개의 약용식물시험장을 관장한다. 시험장의 연구인원이 농학과 약학전공자가 각각 절반씩 구성돼 있어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약력

- 1950년생
- 1973년 나고야 대학 농학부 졸업
- 1996년 황기·천궁 양귀비 재배에 관한 연구(박사)
- 1973~1989년 쯔무라제약 연구소 수석연구원
- 1989~1992년 북해도 약용식물시험장 재배연구실장
- 1992~현재 쓰꾸마 약용식물시험장 육종재배실장

97한약재 시장동향

심한거래부진 속에 시세형성조차 어려워 일부품목 품귀현상도

지난 97년은 모든 농작물이 대풍을 이룬 가운데 한약재도 전반적으로 좋은 작황을 보였다. 황기 당귀등 뿌리작물 재배면적이 비교적 20~30% 증가한 반면 구기자 오미자 산수유 대추 등 열매류는 작황이 부진했다.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황금, 현호색, 건강, 고본등 일부품목의 경우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또한 단속이 강화된 탓인지 일명 「보따리물건」 거래가 주춤하면서 지난 한해는 두충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국내산 약재 시세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타기도 했다. 특히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맥문동, 택사, 구기자, 오미자등의 약재를 비롯, 비교적 저가 약재인 까닭에 재배·채취가 기피되고 있는 익모초, 인진, 박하등 풀잎약재등이 지난 한해동안 꾸준히 강세를 보인 품목들.

반면 재배면적 증가와 풍작으로 생산량이 다소 증가한 당귀, 황기(1년근)의 경우 예년보다 다소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부터, 수량성이 뛰어난 개량종이 농가에 급속히 확대 보급되기 시작한 백하수오는 수확기 씨알 굵은 것들이 대량 쏟아져 나오면서 근당(6백 g 기준) 2, 3천원 대로 곤두박질 쳤다.

그러나 불황이다 보니 시세형성 조차 어려울 만큼 실제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 이어졌으며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특정 품목의 물량을 쥐고 값이 오를때 까지 품지않는 일부 중상들의 장난질은 계속됐다. 토당귀 황기 독활등의 약재가 그 대표적인 예.

최근 3, 4년 전부터 시세가 폭락하기 시작했던 작약 백지 독활 등의 약재는 지난해 다소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지만 불황의 여파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채 시세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제자리 걸음이다.